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우려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중동발 위험

단기전에 대한 컨센서스와 반도체 호황에 기대 지표 호조 그리고 정부의 충격완화 노력에 기인 ▶ 전쟁에 가려져 있는 현안들로도 시선을 돌릴 때

미국과 이란 간 다시 협상재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주식시장은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란전쟁관련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조금 잦아든 모습이다. 물론 여전히 상황은 유동적이고 불안요인은 산재해 있는 만큼,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고 지정학적 위험이 소멸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다만, 4월 들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 초기에 급박하게 반영되었던 심리적 충격은 뚜렷하게 완화되는 모습이고 이 악재에 금융시장 참여자 및 경제주체들이 익숙해짐에 따라 민감도는 완화되는 흐름이다. 전고점까지 반등한 최근 주가지수만을 근거로 한 판단은 아니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나 MOVE 지표들 역시 3월 말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협상 결렬 뉴스에도 이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대외적인 우리나라 신용도를 보여주는 CDS spread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일간 뉴스심리지수 흐름이다. 개선 초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본격화된 3월 초와 확전 우려가 팽배했던 3월말 두번의 저점을 거치며 비교적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월들어서도 중동발 뉴스는 우려와 기대를 번갈아 전했지만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큰 변화가 없었다. 매우 민감한 주제인 중동발 불안이 당초 우려보다는 빠르게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흡수되는 모습이다. 중동발 악재에 대한 우려가 우려보다 빠르게 심리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①전쟁이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컨센서스가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②반도체 호황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며 실물경제지표의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고 ③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합쳐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파국적인 상황으로 중동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한 지난 3월 초와 같은 충격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우려보다 빠르게 우려가 흡수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이 실물 지표에 반영되는 폭 역시 우려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1월 이후 계속해서 2%를 유지하고 있다. 전망치가 조정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4월에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향 조정 폭은 0.1%pt 내외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Economist

정용택

02) 6915-5701

yjeong0815@ibks.com

RA

김예슬

02)6915-5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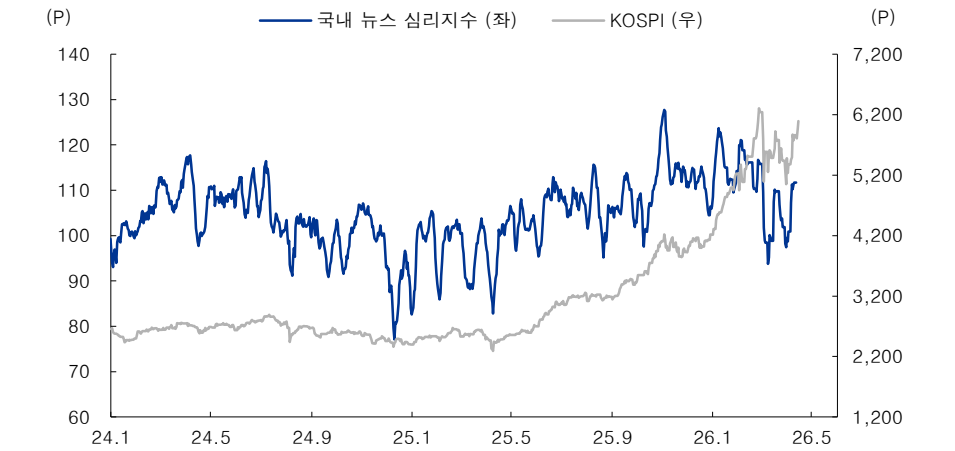
chchu93@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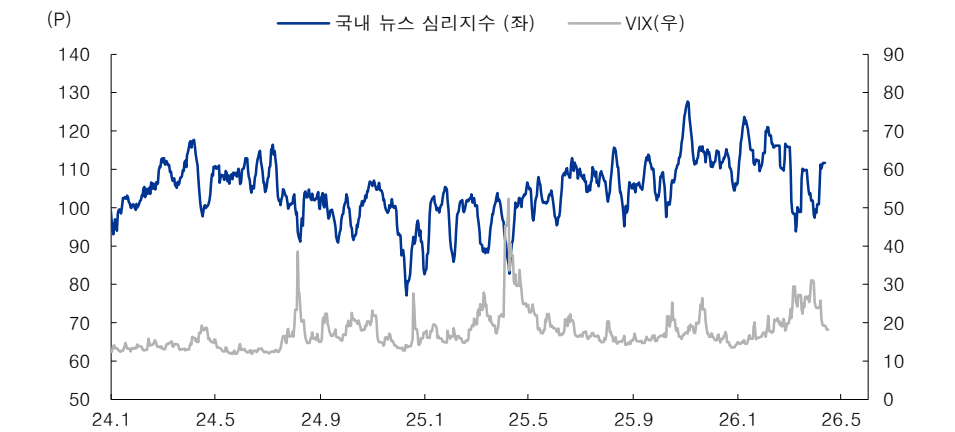
흐름 상으로 보면, 현재 모든 눈과 귀를 붙들고 있는 전쟁 이슈에서 점차 전쟁 이슈에 가려져 있던 다른 문제들도 시선을 천천히 옮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우리의 시각은 지나치게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이전 자료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이번 경기사이클은 특징은 투자가 경기를 견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양극화는 크게 확대되는 상황인데 이 양극화에 기반한 신용위험이 가장 큰 우려인 만큼 미국 사모신용위험과 같은 불안 요인과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림 흐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 아직 중동발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전고점에 거의 도달한 종합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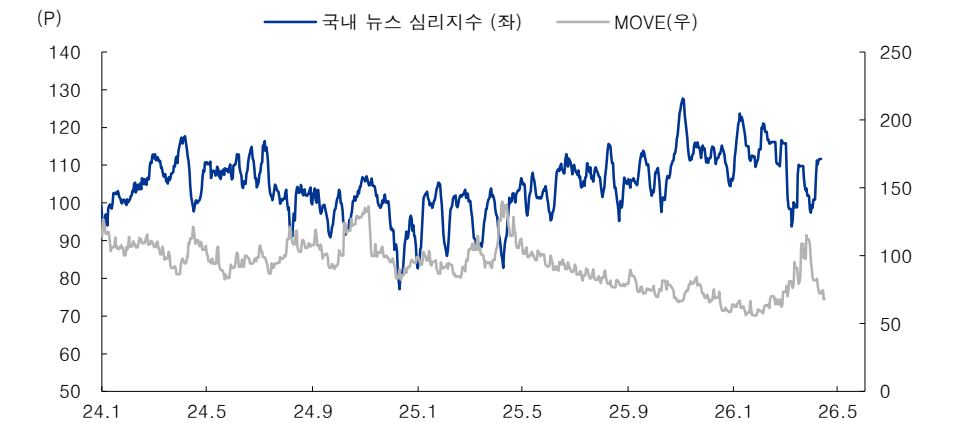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2. 주가지수 뿐 아니라 변동성 지수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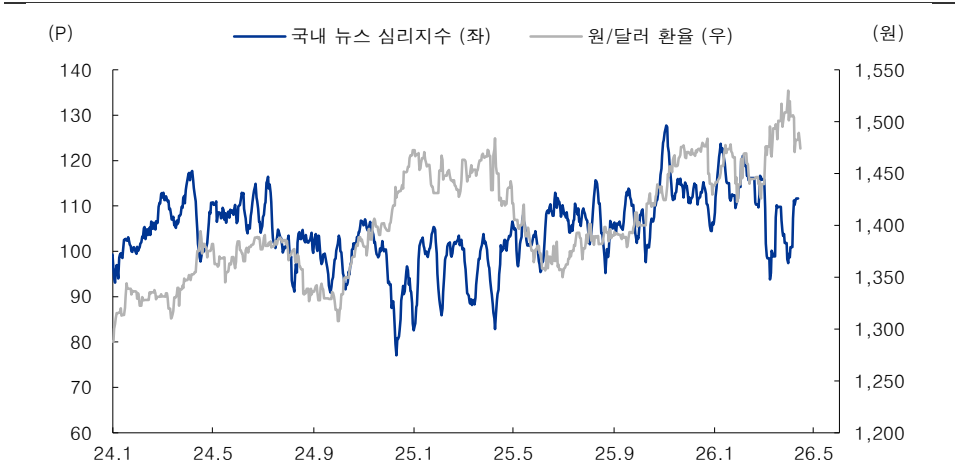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3. 채권 시장의 불안감도 3월말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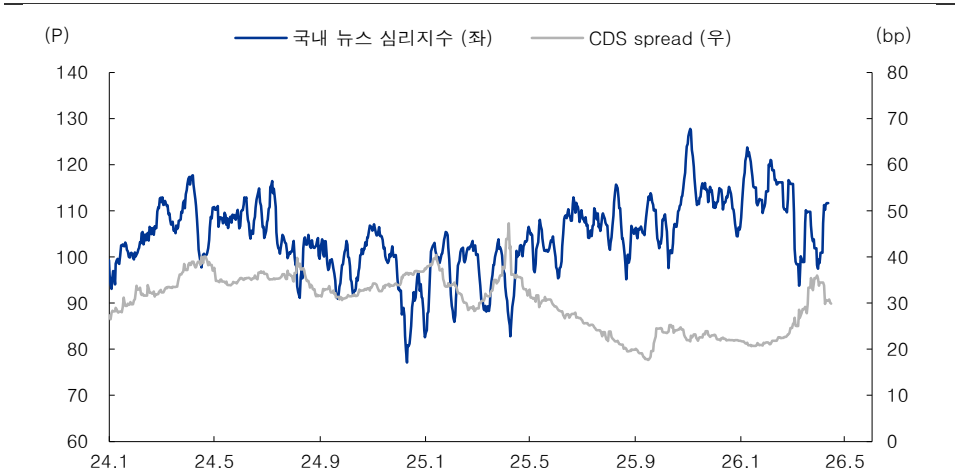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4. 휴전 이후 환율은 1,500원대에서 1,400원대 후반으로 하향되며 향후 방향 모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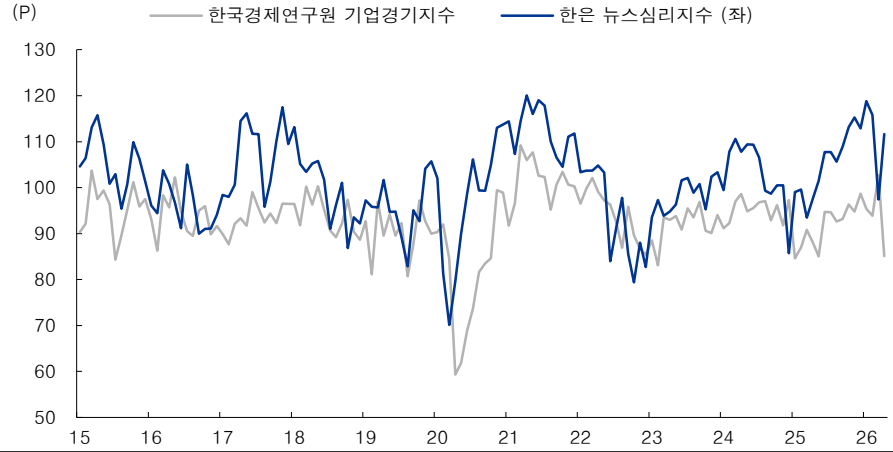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5. 우리 경제 신용위험 보여주는 CDS spread도 하락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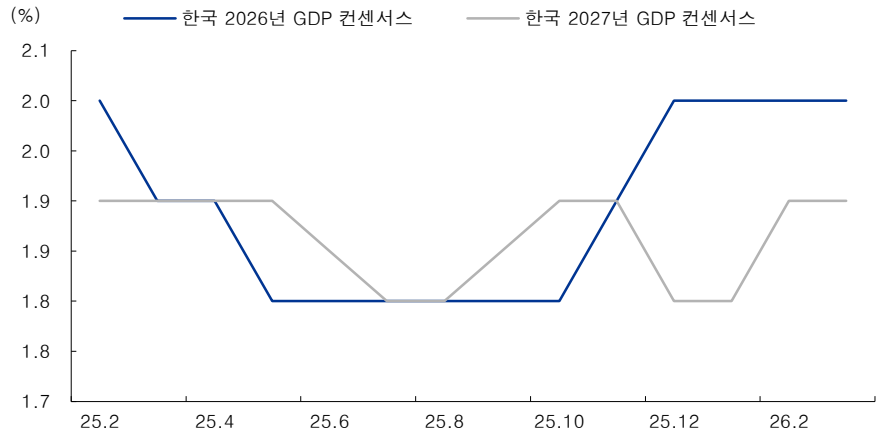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6.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뉴스심리지수 흐름 ▶ 중동발 불안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줌 ▶ 4월 이후 체감경기지표들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IBK투자증권

그림 7. 아직 2% 수준을 유지 중인 2026년 성장률 컨센서스. 시차 감안하면 4월이나 5월 하향 조정 가능성 높지만 이란 사태로 인한 조정 폭은 0.1%pt 정도로 크지 않을 듯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